

유한양행, 영업이익 27.6% 증가

2005년 617억7000만원 ... 해외수출 급증에 균형적 성장이 기여

유한양행은 2005년 영업이익이 617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.6% 증가했다고 1월26일 공시했다.

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3920억원과 635억원으로 15.2%, 4.5% 증가했다.

영업이익의 증가는 2004년과 2005년에 출시된 신제품들의 반응이 좋았고, 해외수출이 50% 이상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알려졌다.

해외수출의 큰 폭 증가에는 FTC라는 에이즈치료제 원료 판매호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생활용품 등의 신제품을 통해 균형적 성장을 이룬 것도 영업이익 증가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.

유한양행은 “기존 제네릭 제품의 판매 강화와 신약 출시 등에 힘입어 2006년 매출액이 14.8% 증가한 4500억원에 달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<화학저널 2006/01/27>